

經濟體制와 開發模型

朴 昇*

……………〈目 次〉……………	
I. 後進國開發과 마르크스主義	IV. 生産要素의 活用과 效率
II. 經濟體制와 開發模型의 概觀	V. 資源配分과 價格機能
III. 經濟體制와 極大化模型	VI. 맺는 말

I. 後進國開發과 마르크스主義

封建經濟에서 資本主義經濟의 生成·發展은 生産力의 限界를 극복하여 經濟效率을 지속적
으로 提高시키려는 體制內의 作用에 의한 自然的 進化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비해
서 資本主義의 붕괴와 社會主義化의 必然性을 力說한 마르크스主義는 分析對象인 資本主義
의 어떤 特定模型을 不變條件으로 假定하는 한편 社會가 理想으로 하는 價值觀을 主觀的이고
先驗的으로 前提하여 이들 兩者間의 隔差를 人爲的이고 體制外的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
이며 그 結果로서 導出된 것이 이른바 社會主義革命의 不可避論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資本主義經濟의 進化·發展은 그 動因이 기본적으로 經濟效率이지만 社會主
義의 生成·發展은 經濟效率이 그 기본적인 動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差異點이 뒤
에 言及하게 될 開發計劃의 模型에 있어서도 밑바닥에 흐르는 異質性이라 할 것이다. 그뿐더
러 社會主義經濟의 理論的 當爲性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條件에 대한 假定과 先驗的이고
主觀的인 價值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假定하고 있는 條件(즉 資本主義의 模型)이
變動하거나 또는 前提하고 있는 先驗的 價值觀(즉 經濟效率 보다는 人間의 水平的 平等이
優先되어야 한다는 論理)이 객觀적으로 立證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思想體系는 하루 아침에
無意味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다.

예컨대 마르크스思想體系의 밑바탕은 資本을 生産要素로서 認定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는
데 이것은 私有財產制度를 否認한다는 前提에서 成立되는 것이다. 따라서 私有財產의 否定,
反個人主義(anti-individualism), 反自由主義(anti-liberalism)는 分析結果로서 導出된 結論
이 아니라 마르크스思想體系의 始發이 되는 大前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資本家와 勞動
者의 關係를 補完的으로 보지 않고 利害相反의 關係로만 파악한 階級鬭爭理論이나 資本家

* 中央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가 勞動의 交換價値를 支給하고 使用價値를 購入함으로써 剩餘價値(surplus value)를 創出한다는 것도 大衆의 失業下의 特殊한 資本主義模型을 前提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發展할수록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높아져 利潤率이 下落하고 資本集中化로 過剩生産이 되어 資本主義는 大衆의 貧困을 낳고 붕괴된다고 豫言하였다. 이것은 資本主義經濟가 스스로 自然淘汰的 進化와 適應을 하면서 發展한다는 것을 看過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豫言대로 한다면 社會主義革命은 先進資本主義經濟에서 일어나야 할 것인데 그의 豫言과는 달리 資本主義經濟는 繁榮을 계속하고 있고 社會主義革命理論은 先進經濟에서 全然 適用力을 잃고 있는 實情이다.

그래서 오늘날 마르크스主義는 先進資本主義國의 處方으로서는 死文化되고 오히려 落後된 後進國의 開發理論으로서 一部地域에서 活用되는 情狀이 있다. 眞正적으로 이른바 社會主義革命을 이룩한 나라들이 例外없이 相對的으로 落後된 나라들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社會主義革命을 처음 이룩한 러시아는 歐洲에서 가장 落後된 나라였으며 20世紀後半에 社會主義化한 나라들도 모두 例外가 아니었다. 그러면 왜 社會主義模型은 成熟資本主義經濟에 無力하고 落後된 後進國에 尤혹을 주는 것인가?

호오마트[14]는 마르크스가 資本主義의 自體調整力을 度外視했기 때문에 先進資本主義經濟에는 無力하고 오늘날 後進國의 현실은 그 당시 마르크스가 設定한 資本主義의 特殊模型에 近似的으로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가 前提한 當時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大衆들의 要求事項은 8時間勞動制・一般的 參政權・勞組結成許容・累進稅・基礎教育의 義務化・社會保險制度 등이라 하겠는데 成熟資本主義經濟는 이미 이들 要求條件들을 다 充足시키고 있어서 社會主義化的 壓力이 排除되었을 뿐 아니라 勞使關係에 있어서도 사실상 勞組와 企業家間的 雙方獨占狀態에 있어서 勞動搾取라는 用語가 無用化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後進國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러한 要求事項들이 未解決의 課題로 되어 있고 사람들은 一時에 이러한 欲求를 충족하려 하기 때문에 急激한 變化를 追求하게 되는데 이러한 性向이 社會主義化하는 眞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삭[19]은 成熟資本主義經濟에서도 戰時中에는 中央計劃經濟에 準하는 計劃模型을 導入하는 수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나치게 急速한 變革을 추구하거나 外部經濟要因이 크게 作用하는 경우에는 中央計劃經濟를 지향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가능성은 후진국의 경우가 支配的이라고 言及하고 있다. 한편 헐리너[11]는 社會主義的 計劃模型이 新生國家들에게 매력을 주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는 新生國家들의 경우 經濟改革 뿐 아니라 社會改革을 필요로 하고 資本蓄積이 絶망적인 輿件일 뿐 아니라 社會構造가 利害集團間的 相衝이 크고 開發에 따른 犧牲을

不平等해야 한다는 欲求가 크기 때문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社會主義가 後進國開發手段으로서 一部國家에서 採行되고 있다면 그러한 나라들은 어떠한 條件을 가진 나라들인가? 즉 後進國이 어떤 特殊環境에 있을 때 社會主義의 開發模型에 유혹을 느끼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後進國이 追求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工業化이다. 市場經濟體制下에서 궁극적인 工業化 自立經濟達成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社會主義의 開發에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事例를 구체적으로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1) 相對的 後進度가 깊을수록 社會主義化의 유혹은 크다. 거센크론[10]은 相對的 後進度가 깊을수록 急進的이고 構造的인 變化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後進度가 깊을수록 貧困과 落後된 社會構造를 急進的으로 改善할 能力과 條件은 缺乏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欲求의 現實의 커다란 隔差가 社會主義의 開發模型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2) 經濟的 對外隸屬性이 강하고 이것이 自主的 經濟開發을 阻害하는 힘이 강할수록 社會主義的 開發模型에 기우는 경향이 있다. 프랑크[7]는 後進國開發에 있어서 最大의 장애 요소는 後進國이 다른 나라에 經濟的으로 예측되는 首都圈·衛星圈關係(metropolis-satellite structure)라고 말하고 이런 경우 衛星圈은 首都圈의 發展을 위해서 犧牲되기 때문에 이러한 關係의 斷切이 開發의 先行要件이며 社會主義化는 그 手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쿠바의 共產化나 오랜 植民地支配에서 獨立한 一部 新生國들의 左傾化는 이러한 要因이 크게 作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失業人口가 많을수록 그리고 市場經濟를 통한 資本蓄積이 悲觀的일수록 社會主義化의 유혹은 크다. 失業人口가 많을수록 體制否定的인 社會的 壓力이 갈 수 밖에 없다. 失業이 많더라도 資本供給이 가능하면 이러한 壓力이 中和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市場經濟는 危機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市場經濟를 통한 資本蓄積이란 自發的 貯蓄, 租稅나 인플레이션을 통한 強制貯蓄, 外資導入 등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方法으로 資本을 공급할 可能性이 작아 있을 때 社會主義化의 위험이 크다 할 것이다.

(4) 社會的 同質性이 적을수록 社會主義化의 위험이 크다. 低所得에서 貧富差가 크거나 身分의 階級對立이 크거나 人種·言語·慣習 등의 同質性이 적을수록 集團的 利害對立이 커져서 이것이 社會主義的 革命的 動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끝으로 開放體制의 이익을 얻기가 어려운 條件일수록 社會主義化에 유혹을 받는다. 國際貿易과 外資導入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것은 對內的 貧困과 不滿을 해소하는

힘으로 活用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市場經濟에 대한 信賴는 줄어들고 閉鎖와 孤立으로 나아갈 위험을 갖는다. 投資의 吸收能力(absorptive capacity)이 없어서 外資를 活用할 수 없거나 輸出資源이 없거나 輸出資源이 있더라도 國際的 比較優位利益을 얻기 어려운 商品 예컨대 內包型輸出(enclave-type export)이거나 原始商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工業에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社會主義化하는 경우를 보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II. 經濟體制와 開發模型의 概觀

일반적으로 經濟體制는 中央計劃經濟(centrally planned economy)와 市場經濟(market economy), 또는 中央集權的 經濟(centralized economy)와 分權的 經濟(decentralized economy)로 兩大分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分類는 매우 추상적이고 概括的이어서 複雜多岐한 經濟體制의 異質性을 單純化하는 利點이 있는 反面 現實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混亂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이러한 分類는 經濟體制를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로 兩分하는 것과는 全然 개념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것은 社會主義의 包括範圍가 너무 넓고 多樣하기 때문이라 하겠는데 예컨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主義經濟인 유고슬라비아는 市場經濟이고 分權的 計劃(decentralized plan)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經濟體制 및 計劃模型이 中央集權的이나 分權的이나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程度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체로 蘇聯을 中央計劃經濟 그리고 美國을 分權的 市場經濟로 代表시킬 수 있지만 蘇聯의 體制에도 分權的 要素가 있고 美國經濟에도 中央計劃的 要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蘇聯의 中央計劃經濟模型과 美國의 市場經濟模型을 兩極으로 하고 볼 때 그 中間에는 수많은 變形이 있는 것이니 이 때문에 經濟體制와 開發模型은 代表的인 몇 개의 類型을 現實社會에서 찾아내고 이러한 現實的인 分類에 의하여 考察하는 것이 보다 具體性이 있다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經濟體制의 특질을 規定하는 要因이 무엇인가를 먼저 考察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決定하는 基本的 要因으로서는 다음 네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所有模型(ownership model)이다. 所有의 概念에는 法律上의 所有者(*de jure* owner)와 事實上의 所有者(*de facto* owner)가 있다. 法律上의 所有者는 法律上 所有權의 최종적 歸屬者이지만 事實上의 所有者는 사실상 管理하고 利用하는 權限을 가진 사람을 뜻

한다. 法律上の 所有者의 事實上の 所有者가 각각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經濟體制의 특징을 가름하는 要因의 하나가 된다[29, 第1章].

물체로 資源을 配分하는 手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 手段으로서는 價格의 손과 사람의 손, 즉 價格機能과 行政的 計劃機能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價格機能이란 市場原理를 바탕으로 한 것을 뜻하며 따라서 計算價格의인 것은 除外된다.

체제로 經濟行爲에 있어지의 意思決定이 分權의이냐 아니면 中央計劃의이냐 하는 것이다.

끝으로 生産物에서 나온 所得을 누가 分配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란 中央計劃當局·勞動者·企業家 등을 指稱한다.

以上과 같은 基準에 의해서 본다면 현재의 經濟體制은 蘇聯으로 代表되는 中央計劃社會主義(centrally planned socialism), 유고슬라미아로 代表되는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로 代表되는 共同體社會主義(syndicalism), 프랑스로 代表되는 管理資本主義(managed capitalism), 그리고 美國으로 代表되는 自由資本主義(free capitalism)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각각의 異質的 類型에 대해서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1. 中央計劃的 社會主義模型

蘇聯經濟의 모형은 中央計劃的 社會主義라고 볼 수 있다. 生産手段의 所有形態에는 國有·共有·私有 등이 있으나 革命以後 구준한 國有化政策을 통해서 現在에는 거의 全部가 모두 國有化되어 있고 極少數의 部分만이 例外的으로 共有形態로 있을 뿐이다. 그뿐 아니라 모든 生産手段은 國營形態로 活用되고 있기 때문에 蘇聯에 있어서 政府는 모든 生産手段의 法的 所有者일 뿐 아니라 事實上的 所有者라 할 수 있다[5].

計劃模型은 中央集權的 計劃으로 특징지어진다. 모든 生産活動과 企業管理 및 貿易은 中央政府의 管理下에 있으며 生産計劃의 樹立, 資材의 需給, 貯蓄, 投資의 實行 등도 中央計劃機構(Gosplan)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生産하고, 생산한 것은 얼마만큼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意思決定은 政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資源配分의 手段은 市場價格이 아니라 行政當局의 計劃이다. 蘇聯에도 價格이 있고 價格이 資源配分에 部分的인 役割을 하고 있지만 蘇聯의 價格은 政府가 指定하고 있기 때문에 價格은 政府行政力에 의해서 資源을 配分하는 데 있어서의 補足的 手段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政府는 모든 勞動者의 賃金을 결정하고 이렇게 決定되는 賃金은 全體的인 貯蓄·投資計劃에 의해서 필요한 貯蓄을 사전적으로 公定하고 나서 生産되는

것이기 때문에 生産物에서 나오는 소득의 分配도 완전히 中央計劃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勞動組合은 存在하지만 賃金決定에 있어 團體協議權은 없으며 다만 一般的인 賃金政策을 樹立하는데 있어 政府에 助言하는 全國營機關이 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를 除外한 東歐諸國과 中共도 이러한 中央計劃的 社會主義模型에 포함된다. 그러나 나라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니 같은 東歐圈에서도 알바니아는 蘇聯보다도 더 濃度가 깊고 保守的인 中央計劃經濟이고 불가리아와 東獨은 蘇聯과 比等한 體制를 가지고 있으며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보다 많은 分權의 要素를 導入하여 蘇聯보다 自由化를 지향하고 있다[25].

中共의 模型은 蘇聯과는 상명한 거리를 가지고 獨自의인 模型을 구축하고 있는데 소련이 처음부터 急進的 工業化를 추구한데 比해서 中共은 農業基礎 위에서의 工業化를 목표로 農業開發을 우선하고 있으며 소련이 先進技術의 導入과 地域別分業을 목표로 하였는데 對해서 中共은 傳統的 技術의 開發과 地域別 自立經濟를 목표로 하고 있다[8, 20]. 한편 組織과 管理 및 價值基準面에서도 中共은 意思決定權을 地方政府 및 企業에 많이 이양함으로써 소련보다 分權化를 지향하고 誘因制度(incentive system)에 있어서도 소련이 物質的 誘因(예컨대 目標超過達成時의 賞與金)에 置重하는데 反해서 忠誠心과 奉仕精神 등 道德的 誘因에 重點을 두고 있다. 經濟開發의 價值觀에 있어서도 經濟的 生産性보다는 組織과 生産關係에 있어서의 平等과 人和에 力點을 두고 平等問題도 地域間 또는 企業間의 平等보다도 企業이나 組織內의 平等을 重視한다는 점이 소련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20]. 그러나 이러한 中共模型의 特殊性은 東洋이라는 歷史的 背景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中共模型이 開發의 速度와 效率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華國鋒體制 以後 상당한 변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유고슬라비아의 市場社會主義模型

유고의 模型은 勞動者自主管理制度(workers' self-management system)를 그 核으로 하고 있다. 이 模型은 歷史的으로 볼 때 그 根源이 19世紀 오웬(1771~1858)에 의한 空想的 社會主義와 그 뒤의 프랑스 勞動組合運動, 그리고 20世紀初盤에 西歐各國에서 일어났던 勞使協議體運動으로 그 脈絡이 이어지고 있다.

유고模型의 思想的 背景은 自由市場經濟와 中央計劃經濟가 나같이 滿足스러운 것이 못되며 兩者의 長點을 調和的으로 받아 들이려는 데 기분취지가 있다 하겠다. 유고模型은 利己心이 가장 능률적이고 강력한 人間의 動機라고 보는 점에서 우선 中央計劃經濟와는 方向을 달리한다[27, 第8章]. 미르크스는 資本主義經濟에서 勞動과 生産手段이 分離됨으로써 勞動

者는 生産物과 社會로부터 疏外(alienation)된다고 주장하였지만 中央計劃經濟에서는 모든 意思決定을 中央政府가 行하고 그 行政權力이 官僚化함으로써 勞動者들은 機械의 部品처럼 受動化하고 이런 점에서 生産過程과 生産物의 分配過程에서 疏外된다는 것이다. 즉 中央計劃經濟의 模型에서는 政府가 모든 勞動者들의 利益을 옹호하는 代行機關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支配와 被支配의 利害相衡關係가 支配의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유고模型은 이러한 두가지 相異한 形態의 疏外로부터 勞動者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勞動者自身에 의한 自主的 管理體制가 필요하다고 보는 立場에 있다. 여기서 유고模型은 中央計劃經濟의 官僚性과 硬直性을 除去하고 意思決定權의 分權化를 이룩한다는 데 중요한 意義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유고模型은 生産의 概念, 私有財產制度와 市場價格機能에 대한 評價 그리고 政治的 獨裁에 대한 見解 등 여러가지 면에서 中央計劃模型과는 크게 立場을 달리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物質的 富를 生産하는 勞動만을 生産的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教育·의료·科學 등 直接的으로 福祉를 증진시키는 用役을 생산하는 勞動도 生産的인 것으로 본다. 다만 行政·國防·警察과 같이 間接的으로 生産환경을 改善하는 用役만은 生産的 勞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生産的 勞動의 概念은 自由市場經濟와 中央計劃經濟의 中庸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私有財產制度는 반드시 마르크스가 말하는 착취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私有財產制度가 나쁘다고 해서 그 代案이 반드시 中央計劃經濟에서와 같이 國家管理로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基本的으로 私有財產制度가 마르크스의 개념의 착취로 結果될 수 있는 것은 他人의 勞動력을 고용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으며 예컨대 농민이 자기 땅에서 자기 家族勞動으로 生産을 수행할 때 여기서 착취가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私有財產制度는 社會主義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他人을 고용할 경우 고용인의 數와 고용관계 등은 規制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資本主義的 搾取만이 착취가 아니라 中央計劃經濟下에서 官僚權力에 의한 勞動者收奪도 마찬가지로 착취라고 주장한다.

經濟計劃에 있어서 價格과 利己의 誘因에 대해서도 유고模型은 市場價格機能이 반드시 無政府的인 것이 아니며 價格의 자유로운 조정기능과 個人的 利己心은 經濟能率을 보장하는데 有效한 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社會主義建設에 프롤레타리아獨裁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레닌과 스탈린의 잘못된 認識이고 社會主義는 처음부터 分權의 바탕 위에서 民主的 意思決定과 一致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社會主義는 共產主義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過渡的인 體制가 아니라 最終的인 體制라고 主張한다[14].

유고模型에 있어서의 所有制度는 私有와 國有가 共存한다. 私有한 生産手段의 法律的 및 事實上的 私有를 뜻하는 것으로 이나라에서의 私有는 아직 國有化할 수 없어서 過渡的으로 認定되는 私有가 아니라 이나라 社會主義制度의 理念과 本質的으로 일치하는 하나의 所有形態라는 점에서 中央計劃經濟下의 私有와는 本質的으로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나라에서 私有를 認定하는 데 있어서는 生産手段의 私有가 이나라의 社會主義理念과 共存할 수 있어야 한다는 條件이 있는데 그 條件이란 所有者는 企業家가 아니라 勞動者라야 한다는 것, 즉 資本蓄積을 위해서가 아니고 生計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私有에는 規模의 制限이 있고 他人을 고용할 경우 고용가능인원에도 制限이 있다[14, 第4章]. 私有의 內容을 보면 農地는 私有形態가 대부분인데 所有의 上限은 10에이커이다. 한편 非農業은 國有가 支配的이고 私有는 적은 部分에 불과한데 私有形態의 生産手段은 零細規模의 商店과 手工業의 製造業이며 5人까지는 他人勞動의 고용이 許容된다[25, 第14章].

國有的 경우에도 國家는 法律上의 所有者일 뿐이고 事實상의 所有者는 거기서 일하는 勞動者들이라는 데 유고型 所有模型의 특징이 있다. 즉 國家所有의 生産手段은 거기서 일하는 勞動者들의 自主의 意思決定에 의해서 利用되고 管理되며 國家는 直接介入없이 감시자로서의 役割(watchdog function)만 수행하는 것이다.

유고模型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生産할 것인가 하는 것은 勞動者自主管理制度에 의해서 勞動者들 스스로 決定하며 生産된 所得을 어떻게 分配할 것인가 하는것도 原則的으로 勞動者들 자신이 決定한다. 다만 國家는 全體의인 貯蓄・投資計劃에 의하여 貯蓄해야 할 部分의 基準(guideline)을 示達하는데 그치고 있다. 개개의 生産單位企業은 競爭的 市場價格에 의하여 자유롭게 原料를 購入하고 生産物을 販賣하고 있으며 따라서 資源은 行政力이 아니라 市場價格에 의해서 配分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貯蓄과 投資의 計劃目標達成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GNP의 約 30%에 달하는 租稅에 의해서 重要한 投資는 政府가 맡고 있을 뿐 아니라 個別企業에 대해서는 蓄積率의 基準을 示達하며 이에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誘導하고 있다. 다만 國家的으로 특히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投資事業이나 教育과 같은 公共財에 대해서만 例外的으로 中央集權의 計劃이 適用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고模型은 대표적인 分權의 社會主義體制라고 볼 수 있다[14, 第3,4章].

社會身分構造面에서는 수직적 차이(vertical differentiation)만이 階級으로 發展하는 것이며 수평적 차이는 社會的 安定과 分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蘇聯의 경우와는 달리 知識인들이 優待되고 있다. 現在 이나라에서 우대되는 社會的 身分의 순서는 政府官吏・知識人・事務員・勞動者・農民으로서 資本主義經濟의 경우와 大差가 없다. 한편 政治

體制面에서도 一黨獨裁를 否認하고 複數政黨制를 擁護하는 것이 基本的인 立場이나 유고는 異質要素가 많은 社會이기 때문에 複數政黨制에서 오는 國論의 分裂을 우려하여 複數政黨聯合(the League of Communists of Yugo)에 의해서 統治되고 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유고模型的 核心은 勞動者自主管理制度이다[1, 14, 25]. 企業에서 일하는 勞動者는 總會를 구성하고 여기서 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勞動者評議會(workers' council)를 構成한다. 評議員의 數는 企業體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官僚化를 막기 위하여 任期 2년에 連續再選이 금지된다. 모든 決定은 多數決로 하며 評議會가 單位企業에 대한 최고의 결정기관이다. 이 評議會는 投票에 의해서 經營理事會(managing board)를 구성하는데 이 理事會가 生産活動과 分配에 관한 一切의 執行機關으로서 資本主義企業의 理事會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理事들의 任期는 1年이고 連任이 許容되지 않으나 다만 理事會를 대표하는 企業長(general director)의 경우는 任期 5년에 連任이 가능하다.

3. 키부츠의 共同體社會主義模型

이스라엘 社會主義經濟體制的 軸을 이루는 것은 키부츠와 모샤브이다. 모샤브는 키부츠보다 社會主義的 要素가 약하고 온전한 協同體이며 키부츠에서 分化된 것이다[17, 21].

키부츠模型은 生産手段을 所有하고 生産·分配·消費를 함께 하고 있는 資本主義經濟에서의 한 家庭經濟模型이 하나의 村落 또는 地域으로 擴大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알기 쉬운 설명이 될 것이다. 키부츠의 평균크기는 120世帯程度이며 이것은 당초에 農業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지금은 都市와 工業部門으로까지 擴大되고 있다. 키부츠模型은 構成員(member)들이 生産手段을 共有하고 共同으로 生産하여 共同으로 消費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蘇聯과 같은 中央計劃經濟나 集團農場에서도 所有·生産·分配는 共同으로 하더라도 消費는 個個人에게 맡겨지고 있는데 키부츠에서는 消費까지도 共同으로 한다는 점에서 中央計劃經濟模型보다도 理論上으로는 더 급진적 社會주의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키부츠가 형성된 것은 20世紀初부터인데 이것이 生成한 때는 이스라엘 特有의 與件이 作用한 것이다. 즉 사막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集團的 協同勞動의 需要가 있었고 國防上 生存을 위한 集團의 防衛가 필요했으며 東歐로부터 들어오는 移民에 대한 定着對策이 이러한 共同體的 社會主義를 낳게 한 것이다.

키부츠는 모든 生産手段의 私有를 認定하지 않으며 生産手段의 所有形態는 構成員들이 法律上의 所有者일 뿐 아니라 事實上의 所有者이다. 그리고 自發的인 共同體라는 특징이 있다. 構成員의 轉入은 自由意思에 의하여 無料로 이루어지고 이 共同體를 떠날 경우에도 自由意思에 의하여 사람과 휴대품만 나가게 되는 것이다. 모든 構成員들의 衣食住는 키부츠

가 공동으로 공급하며 個人은 무엇을 어떻게 消費할 것인가를 決定할 수 있다. 어린이는 낳는 순간부터 父母에게서 떠나 共同體에서 양육하고 食事も 共同體食堂에서 공동으로 하고 피복과 日常用品도 共同體에서 支給한다. 따라서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消費하는 模型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極左形態의 體制가 自由競爭의 價格機能과 西歐民主主義의 意思決定過程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體制와 크게 對照된다. 키부츠經濟는 構成員들의 자유로운 自治에 의해서 運營되고 政府의 直接的인 간섭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一切의 經濟活動이 市場經濟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分權化經濟인 것이다. 그리고 個人의 自由가 존중되고 意思決定過程이 民主的이라는 점에서 政治的 民主主義는 西歐型民主主義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키부츠의 운영은 全體構成員들의 總意에 의하여 運營機構을 만들고 運營擔當者들의 官僚化를 막기 위해서 이들을 매년 改選할 뿐 아니라 重要案件은 每週 열리는 總會에서 決定하게 된다.

키부츠模型은 勞動을 道德的 價値基準으로 삼고 있으며 個人의 利益과 集團利益의 調和를 理念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個人間的 平等과 集團의 安全을 重視하며 人間의 自由와 自發的 參與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經濟思想面에서는 極左形態의 社會主義라고 볼 수 있으나 그 具現方法에 있어서는 西歐資本主義模型과 類似한 점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特異한 模型이라고 볼 수 있다.

4. 自由資本主義와 管理資本主義

엄밀한 의미에서의 自由資本主義(free capitalism)는 없다고 보겠지만 相對的인 意味에서 美國經濟의 模型은 自由資本主義라 할 수 있다. 美國에서 모든 生産手段의 法律上 및 事實上 所有者는 本質的으로 個人이며 生産・分配・消費 등 모든 經濟活動에 있어서 最終的인 意思決定者는 企業과 家計이기 때문에 典型的인 分權化經濟라 할 수 있다. 모든 經濟活動을 이끌어주는 指標은 競爭의 市場에서의 價格이기 때문에 中央政府에 의한 綜合的인 經濟計劃은 存在하지 않으며 다만 價格機能의 作用을 부분적으로 補完・調整하기 위한 補整政策이 있을 뿐이다.

이에 미해서 프랑스經濟의 模型은 管理資本主義(managed capitalism)에 分類되며 이것은 自由資本主義와 國家資本主義(state capitalism)의 混合型이다[3, 22의 第4章]. 1945年の 憲法改正으로 政府는 價格統制權, 必要産業의 國有化權, 民間企業에 대한 特定商品生産規制 또는 生産命令權 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經濟는 國營企業部門과 民間企業部門으로 兩分되어 있고 中央政府에 의한 綜合經濟計劃이 모든 經濟活動의

基本方向을 이끌어가고 있다.

國營企業의 형태는 政府豫算圈內에 포함되어 直營하는것, 豫算圈外에서 獨立된 公共法人으로서 獨占權을 가진것, 獨立된 公共法人으로서 民間企業과 競爭關係에 있는것, 政府·民間合作企業, 地方公共團體企業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國營의 主對象이 되는 產業은 石炭·電力·가스·石油·非鐵金屬鑛·金融·軍需産業·航空과 鐵道·海運·通信·放送과 新聞 및 映畫 등이다. 이러한 國營部門은 全體工業生産(電力·輸送·通信 包含)의 약 2割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經濟는 國營·民營 할것 없이 모두 中央政府에 의한 經濟計劃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프랑스의 經濟計劃은 個別主體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自發적으로 따라오도록 方向과 目標을 주는데 意義가 있으며 計劃內容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100~220개의 重要産業에 국한된 重點의 計劃이며 年次計劃 없이 計劃最終年度의 目標만을 提示하는 中期指標型 計劃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그래서 經濟計劃의 類型을 說得型計劃(persuasive plan), 規制型計劃(regulative plan), 中央型計劃(central plan)으로 나눈다면 프랑스計劃은 說得型計劃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經濟가 市場機能에 의해서 움직이고 모든 經濟行爲의 최종적 意思決定者가 個別經濟單位라는 점에서 分權的 經濟라는 데는 異論이 없다. 이러한 市場經濟에서 中央政府가 計劃目標을 달성하는 手段으로서는 다음 세가지가 基本이 되고 있다.

첫째로 國營部門은 直接 정부가 計劃에 一致하도록 운영한다.

둘째로 民間部門은 財政金融政策을 통해서 民間이 計劃을 따라오도록 誘導한다. 그러한 財政金融政策으로서서는 全體프랑스投資의 25%를 점하는 公共資金의 配分, 金融資金의 選別的 配分, 租稅減免 등이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誘因을 주는 데 있어서의 優先順位는 中央政府的 計劃機構인 GCP(General Commissariat for Planning)가 擔當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政策武器는 國營銀行을 통한 公共資金 및 金融資金의 選別的 供給 및 債務保證政策이며 이 때문에 흔히들 프랑스 經濟計劃을 銀行統制計劃(bank control plan)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끝으로 中央政府的 價格統制權이다. 프랑스政府는 필요하다면 모든 價格과 賃金を 統制할 待期性權限(stand-by power)을 가지고 있다. 이 權限은 別로 行使한 일이 없으나 民間企業으로 하여금 計劃에 따르도록 誘導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手段이 되고 있는 것이다.

歐州의 西方國家들의 經濟體制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프랑스模型과 類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西方世界의 開發途上國들의 經濟模型도 이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類型의 經濟模型을 概觀하였거니와 이들을 要約하여 比較하면 <表 1>과 같다.

<表 1> 經濟模型의 綜合比較

分類	模型別	蘇	聯	유고슬라비아	키 부 르	프 랑 스	美	國	
所 有 制 度		國	家	國	家	構 成 員	政 府	및 個 人	個 人
法律上所有者		國	家	國	家	構 成 員	政 府	및 個 人	個 人
事實上所有者		國	家	國	家	構 成 員	政 府	및 個 人	個 人
意思決定方法		中	火 集 權	分	權	分	權	分	權
資源配分手段		國	家 意 思	規 制	市 場 價 格	市 場 價 格	市 場 價 格	市 場 價 格	市 場 價 格
所得分配的決定主體		國	家	勞 動 者	構 成 員	企 業 家	와 勞 動 者	企 業 家	와 勞 動 者
利潤또는剩餘取得者		國	家	勞 動 者	構 成 員	政 府	와 個 人	個	人
個人이 할 수 있는 意思 決定		消	費	消	費	없	음	所 有 生 產 分 配 消 費	所 有 生 產 分 配 消 費

III. 經濟體制와 極大化模型

지금까지 여러가지 形態의 經濟模型에 대해서 言及하였다. 그러면 각각의 異質體制下에서는 어떠한 生産效率를 추구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條件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極大化하려고 하며 그러한 極大化條件을 만족시키는 理想的인 最適生産點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作業을 위해서 여러가지의 經濟模型들은 社會主義의 模型과 資本主義의 模型으로 兩分하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社會主義模型이란 生産手段의 所有, 生産行爲, 生産物의 分配 등이 個人이 아닌 國家 또는 集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前章에서 分類한 經濟模型 가운데 蘇聯·유고슬라비아·키부르 등은 社會主義模型에 속하며 프랑스와 美國은 資本主義模型에 分類된다. 이렇게 나누어 볼 때 極大化模型(maximization model)을 比較함에 있어 基本이 되는 차이는 資本主義經濟模型에서는 生産利潤(會計學的意味)이 企業家個人에게 歸屬되는 데 대해서 社會主義模型에서는 個人아닌 國家나 共同集團에 歸屬한다는 점이다. 물론 國家나 共同集團에 歸屬되는 剩餘가 生産에 참여한 構成員들에게 그대로 환원이 되느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蘇聯과 같이 그 果實을 國家가 獨占하여 處分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試圖하는 極大化模型 白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勞動者들의 生活水準(즉 勞賃을 포함한 還元所得)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言及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일단 國家나 共同集團이 취득하는 剩餘는 個個人에게 富극적으로 환원된다고 假定한다. 價의 價格과 貨金은 常數이고 單一生産要素를 가지고 하나의 商品을 生産한다고 假定하자. 總產出額을 Q , 生産要素로서의 勞動量을 L 이라 하면

$$Q=f(L)$$

資本主義模型에서는 生産의 目的이 利潤이고 따라서 企業家は 利潤極大화가 最適生産의 기준이 된다. 總利潤을 π , 價格을 P , 1人當 貨金を ω 라 하면 $\pi=PQ-\omega L$ 이고 競爭의 市場에서 利潤極大化의 條件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限界生産力(MP)과 貨金이 같은 것이다. 즉 資本主義模型에서는 費用(즉 貨金)이 주어지야만 極大效率點이 決定되고 極大效率條件은 限界值에 의해서 決定된다.

그러면 社會主義模型은 어떠한가? 社會主義模型에서는 集團全體로서의 利益(所得)極大화가 目的이며 集團利益은 構成員들의 平均利益이 極大化할 때 極大化된다[27의 第8章, 29]. 그런데 構成員들의 利益은 資本主義模型에서의 貨金과 集團이 取得한 利潤의 의제적 分배분을 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人當 純產出額을 y 라 하면

$$y=\omega+\frac{\pi}{L} \tag{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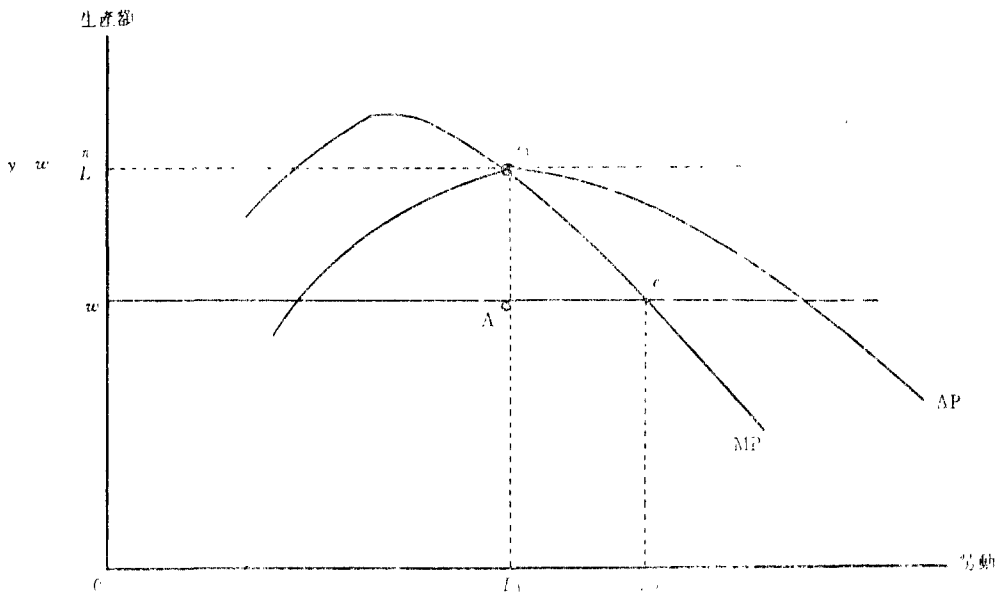
그리고

$$\pi=PQ-\omega L. \tag{2}$$

(2)를 (1)에 代入하여 極大條件을 導出하면 極大效率條件은 平均生産과 限界生産이 같은 것 즉 $MP=AP$ 이다. 이 條件은 平均生産이 極大化되는 점에서만 充足되는 것이므로 社會主義模型이 理想으로 하는 最適生産條件은 平均生産力의 極大點이다. 이것을 <그림 1>에서 보면 e_2 點은 資本主義模型의 極大效率點이며 e_1 點은 社會主義模型의 極大效率點을 각각 나타낸다. 이러한 比較分析을 통하여 두 體制의 經濟模型은 經濟效率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다른 點이 있다고 要約할 수 있다.

(1) 資本主義模型은 限界值에 의해서 極大效率點이 決定되고 生産函數(生産性)와 費用函數(貨金)이 있어야 極大效率點이 찾아지는 데 反해서 社會主義模型의 極大效率條件은 平均値에 의해서 決定될 뿐 아니라 生産函數 하나만으로 極大效率條件이 成立한다.

(2) 資本主義模型은 蓄積極大化模型인데 대해서 社會主義模型은 消費極大化模型이라고 할 수 있다. 經濟全體로서의 蓄積(또는 剩餘)은 資本主義의 均衡點 즉 <그림 1>의 e_2 點에서 極大化된다. 예컨대 兩體制에서 同一한 水準의 貨金(그림에서 ω)을 支給하고 貨金은 全額



〈그림 1〉 經濟體制와 極大化模型

消費된다고 前提한나면 그림에서 e_1 點의 生産은 e_2 點의 生産에 比해서 e_1e_2A 로 둘러싸인 面積만큼 더 蓄積할 수 있다. 그러나 1人當 消費를 極大化하다고 하면 e_2 보다는 e_1 이 더 效率이 높다. 이러한 基本的 差異 때문에 資本主義模型에 의한 經濟開發이 本質的으로 더 動的的(dynamic)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社會主義模型은 消費極大化模型이면서도 成長을 위해서 蓄積을 크게 빼내야 하는 矛盾에 逢着하기 때문에 無理한 消費抑制를 强요하게 되는 自己矛盾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蓄積量을 같은 水準에 確保하자면 社會主義模型은 資本主義模型보다 1人當 消費水準 즉 支給賃金을 더 낮게 유지해야 한다.

(3) 이러한 極大效率條件의 差를 다른 側面에서 보면 平均值에 의해서 均衡條件이 成立되는 社會主義模型의 基本的 價値는 不平等이 限界値에 의해서 均衡條件이 成立하는 資本主義模型의 基本的 價値는 能率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 허쉬만[12, pp. 11~24]의 말을 빌면 社會主義的 開發模型은 集團指向型(group-focussed image of change)인데 대해서 資本主義的 開發模型은 利己指向型(ego-focussed image of change)이다.

(4) 社會主義的 開發模型은 資本主義的 開發模型에 比해서 本質的으로 資本集約型이다.

이것은 1人當 平均生産額의 極大化를 追求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歸結이다. 그림에서 e_1 과 e_2 를 比較하면 이러한 寸景이 明白하다. 따라서 生産函數가 같다면 社會主義模型은 資本主義模型보다 雇傭이 減少하게 되는데 社會主義經濟의 興件은 資本不足下의 人口過剩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더 많은 經濟的 非能率이 不可避하며 이때문에 社會主義模型은 理想과 理念의 乖離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5) 社會主義模型이 <그림 1>의 e_1 에서 極大化의 均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個人厚生の 極大化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個人에 대한 支拂所得(賃金)이 어느 水準에서 決定되느냐에 따라 規定된다. 蘇聯의 경우와 같은 中央計劃經濟에서는 個人에 대한 分配가 國家에 의해서 決定되기 때문에 利潤은 國家가 獨占한다. 이러한 國家獨占利潤은 그림에서 支拂賃金이 w 에서 決定될때 wA 에 e_1A 를 곱한 4角形의 面積이 된다. 이와 같이 利潤을 國家가 獨占하고 國家가 官僚化할 경우 資本主義模型에서 利潤을 企業家가 차지하는 경우와 勞動者에게는 크게 다른 바 없으며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蓄積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非能率의이라는 차이가 있다.

(6) 끝으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두 模型은 資本主義經濟에서 利潤(會計學的 意味)이 零이 될 때 極大化條件이 一致한다. 즉 <그림 1>에서 企業家의 支拂賃金이 L_1e_1 의 높이만큼 된다면 한계生産력과 賃金이 같게 되는 極大條件은 e_1 이 될 것이다.

IV. 生産要素의 活用과 效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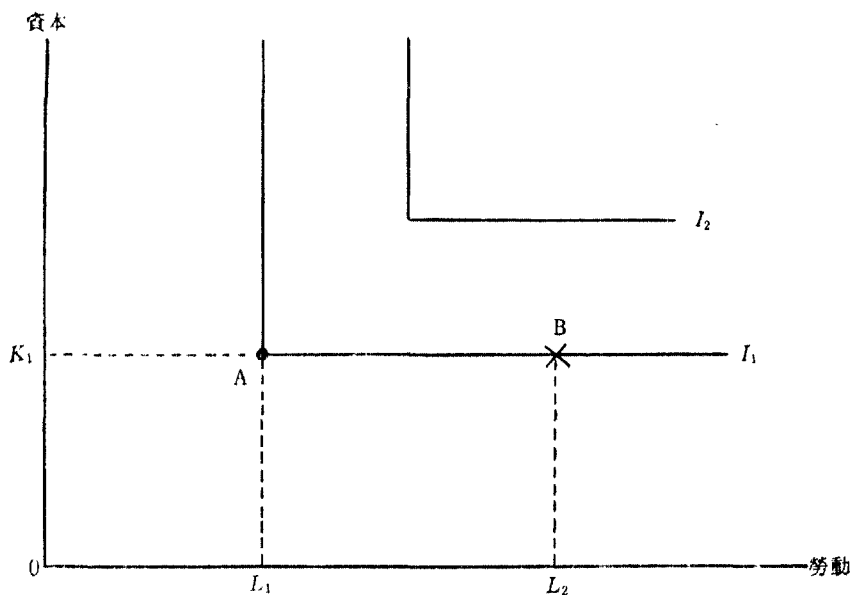
여기서는 生産要素의 活用과 效率이 中央計劃經濟와 市場經濟의 경우가 각각 어떻게 다른가를 比較하여 보기로 한다. 이들 兩模型을 區分하는 기준은 生産要素의 購入과 結合比率 그리고 結合方法이 中央計劃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市場價格機能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유고模型과 키부츠模型은 價格에 관계없이 要素의 完全雇傭을 前提로 生産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部分的으로 中央計劃經濟와 類似性을 가지고 있으나 大部分의 경우에는 市場經濟模型이 適用되고 있어서 明確한 分類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分析은 蘇聯型中央計劃經濟와 美國型市場經濟를 比較의 標本으로 삼기로 한다.

結論부터 말해서 中央計劃經濟는 現存生産要素를 完全雇傭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는 反面 生産效率이 떨어진다는 短點이 있고 市場經濟는 生産效率이 높은 反面 生産要素의 失業이 일어날 수 있다는 長短點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버그슨[5, 第14章]에 의하면 1960年 現在 蘇聯은 서서비스를 除外한 財貨生産部門에서 美弗基準으로 볼 때 勞動生産性은 美國의

44%, 資本生産性は 90%, 그리고 勞動과 資本을 합한 總生産要素의 生産性は 47%에 불과하며 루블貨基準으로 보면 勞動生産성은 美國의 21%, 資本生産성은 66%, 總生産要素의 生産성은 37%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生産性隔차는 科學과 技術水準의 차이에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餘他の 與件이 같다 하더라도 中央計劃經濟下의 生産效率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論證되고 있다[22의 pp. 136~142, 19 및 28]. 그러면 中央計劃經濟의 生産效率은 왜 市場經濟보다 落後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原因을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生産要素의 代替彈力性(elasticity of factor substitution)이 낮고 이 때문에 生産要素結合의 效率이 낮기 때문이다. 바이츠만[28]은 2次大戰後의 蘇聯에 대해서 CES生産函數를 導出하고 生産要素의 代替彈力性이 매우 낮아 새로운 技術이나 與件變化에 대해서 要素結合比率의 適應이 매우 느리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이 蘇聯産業의 非能率의 根本原因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中央計劃經濟에서 生産要素를 結合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보아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 (가) 現存生産要素의 完全雇傭이 前提되기 때문에 個別生産에 있어서 最適結合比率이라는 合理性이 度外視될 수 밖에 없고 (나) 價格에 의해서가 아니라 行政的 決定에 의해서 要素選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生産要素의 費用과 收益計算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最適結合點을 찾아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市場經濟에서는 生産要素들의 限界生産力比率이 要素費用比率과 같을 때 最大效率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中央計劃經濟에서는 이러한 計算이 不可能할 뿐더러 可能하더라도 完全雇傭이라는 前提와 矛盾되어 實現될 수 없다. 예컨대 現存資源이 機械 1臺에 勞動力 100人이면 그 生産技術이나 生産過程에 관계없이, 그리고 실사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負라 하더라도 機械 1臺에 100人을 結合하는 生産方式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中央計劃經濟下의 生産函數는 固定比率函數(fixed proportion production function)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림 2>는 計劃經濟下의 生産非能率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I 는 等量線이며 資本은 K_1 水準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경우 最適結合은 A 點이다. 그러나 勞動力이 L_1 에 있지 않고 L_2 에 있을 때 中央計劃經濟下의 生産點은 B 點이 되는 것이니 AB 區間은 生産要素의 浪費를 뜻한다. 代替彈力性이 높은 市場經濟下의 生産函數였다면 이런 경우 勞賃費用의 下落으로 作用하여 보다 높은 生産水準에서의 要素結合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失業을 안고 있는 開發途上國이 中央計劃的 開發模型을 채택하면 지나치게 勞動集約的인 要素結合을 채택하게 된다. 그런데 前章에서 본 바와 같이 社會主義經濟의 極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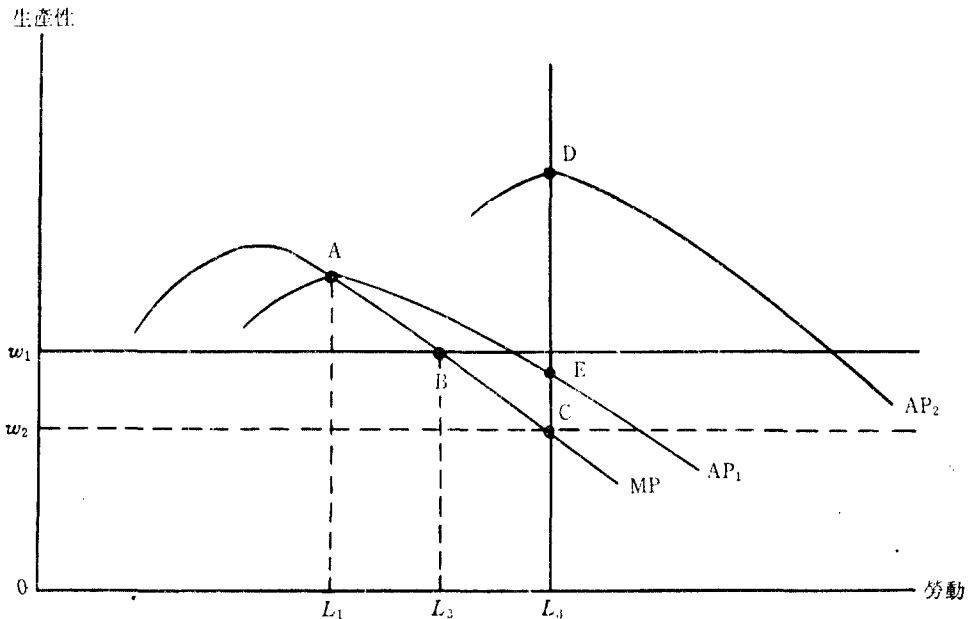
〈그림 2〉

條件을 充足하려면 資本主義經濟보다 더 資本集約的인 要素結合이 必要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中央計劃經濟는 理想과 現實의 乖離가 甚수 밖에 없다는 것을 再確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生産要素의 可動性(factor mobility)이 낮게 된다는 점이다. 生産要素로서의 資本은 中央計劃機構에 의해서 所有되고 管理되고 있는데 이러한 所有와 管理가 市場機能에 의한 경우보다 可動性이 떨어진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資本보다도 勞動의 경우이다[26]. 後進國의 經濟開發에 있어서 勞動의 可動性問題는 기본적으로 農業勞動력을 工業部門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吸收하느냐 하는 데 있다. 蘇聯에서도 個人的 職業選擇自由는 상당한 범위에서 認定되고 있으나 基本的인 配分은 최종적으로 中央計劃當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농업부문의 生産性은 工業部門보다 낮기 마련이고 이것이 市場經濟에서는 農業部門의 失業과 相對的 低賃金으로 反映되어서 農業勞動을 工業部門으로 흐르도록 하는 強力한 誘因으로 作用하게 된다. 이러한 作用力이 中央計劃經濟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26]. 그 힘이 相對的으로 약할뿐 아니라 生産性이 낮은 農業部門

에서도 完全雇傭이 前提되어 모든 사람이 理論上 平均生産性에 準하는 消費을 누릴 수 있게 되므로 農業勞動力을 工業化시키는 壓力이 크게 作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또한 資本需給上의 構造的인 乖離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中央計劃的 社會主義模型的 體制能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市場經濟보다도 더 많은 資本蓄積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社會主義的 最適均衡이 보다 資本集約的인 점에서 이루어진다는 事實로도 알 수 있지만 <그림 3>에서도 立證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現在の 勞動力이 L_3 에 있고 市場經濟의 賃금이 w_1 에 있다고 假定한다. 이런 경우 市場經濟의 極大效率點은 賃金과 限界生産力(MP)이 만나는 B點이며 L_2L_3 의 勞動力이 失業으로 남는다. 이때 勞賃이 w_2 로 떨어지면 C點에서 均衡을 이루어 資本의 追加供給이 없이도 完全雇傭에서 市場經濟體制가 追求하는 極大均衡條件을 充足시킬 수 있다. 그러나 中央計劃經濟의 경우 體制가 理想으로 하는 極大效率條件은 A點에서 充足될 수 있는 것이지만 現存勞動力이 L_3 에 있기 때문에 E點에서 生産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與件에서 體制가 追求하는 極大效率條件은 資本을 蓄積해서 平均生産曲線을 AP_1 에서 AP_2 로 移行시켜 D點의 均衡을 이룩하는 道理 밖에



<그림 3> 社會主義的 均衡과 資本蓄積

는 없다. 다시 말하면 中央計劃經濟의 極大效率條件이 훨씬 資本需要的인 樣態로 成立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資本動員體制가 構造的으로 이러한 資本需要를 充足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선 外資가 資本供給에 있어서의 積極的 變數가 아니라 消極的 變數라는 制約이 있다. 國內資本動員에 있어서는 市場經濟的 蓄積方法이 租稅와 인플레이션에 의한 強制貯蓄과 自發的 貯蓄이 主軸이 되고 있는 反面 中央計劃經濟에서는 中央計劃機構에 의한 強制貯蓄과 消費割當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社會主義的 蓄積模型은 바란[4, 第2章]의 經濟剩餘論(economic surplus theory)이 잘 代辯하고 있다. 그는 所得과 生存水準의 差는 經濟剩餘로서 資本化 할 수 있는 것인데 資本主義體制에서는 廣告·浪費的 競爭·腐敗 등으로 이것이 浪費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中央計劃經濟에서는 國家權力으로 經濟剩餘를 모두 資本化할 수 있으며 이러한 經濟剩餘가 後進國의 경우에도 30%線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中央計劃經濟에서는 그처럼 가혹하게 國民들의 消費水準을 強制的으로 抑制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그의 理論대로 充分한 資本이 動員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中央計劃當局에 의한 強制的 消費抑制의 對象은 理論上 全國民이며 計劃當局이 設定하는 合理的 消費線은 生存水準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開發初期에 있는 나라에서 收奪의 主對象은 農業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中央計劃模型에 의한 後進國의 資本蓄積方式은 결국 生存水準 以上の 農業所得을 中央政府가 강제로 吸收하는 것이라고 集約해서 볼 수 있다. 만일 生産성이 같고 주어진 所得이 같다면 中央計劃的 蓄積方式이 더 많은 蓄積을 가능케 하리라는 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中央計劃的 農業은 勞動의 過大投入과 機械化 및 技術의 落後, 그리고 誘因(incentives)의 缺如로 生産성이 停滯되는 것이 一般的이며 이 때문에 生存水準에서 強制的인 消費·貯蓄割當에도 불구하고 資本供給은 더욱 많은 制約에 直面하는 경향이 있다. 中共에서 農業集團化가 資本動員에 失敗한 事例나 스탈린治下의 가혹한 農業收奪政策이 失敗로 돌아간 事例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8, 25의 第3章].

(4) 合理的인 能率評價基準이 없고 經濟活動에 있어서 誘因(incentives)이 弱하다는 점이다. 中央計劃經濟에서 能率을 評價하는 것은 勞動時間, 生産量 등 길이나 重量으로 재는 量(quantity)이다. 이러한 基準으로는 質(quality)을 잴 수 없으며 따라서 外形의이고 形式的인 基準이 될 수 밖에 없다. 合理的인 評價基準이란 量과 質을 함께 재는 것이어야 하며 市場經濟의 價格은 바로 近似值로서의 그러한 制度라 할 것이다. 그런데 中央計劃經濟는 모든 것이 能率을 評價하는 힘으로 짜여지고 움직여간다. 監視者로서의 雇傭主는 中央計劃

當局 하나뿐이고 모든 個體들은 그 信號에 의해서 움직이는 被動的 位置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體制에서 評價基準이 效率을 바로 잴 수 없을 때 個體들의 行態가 非效率의인 方向으로 誤導될 것은 明白하다 할 것이다[5, 第25章].

評價基準問題와 더불어 經濟動機에 誘因이 弱하다는 점은 中央計劃經濟의 非能率을 결과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誘因이 利己心이라는 점은 否認할 수 없다. 中央計劃經濟는 利己心 대신에 平等倫理와 集團利益을 誘因으로 導入하리 하였지만 그 힘이 利己心에 미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點을 緩和하기 위해서 蘇聯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勞動者와 管理者에 대하여 賞與金制, 生産實績에 따른 差等賃金制, 金利, 成果에 따른 進學 또는 昇給差別制 등 여러가지 資本主義의 制度를 導入하고 있지만 그 效果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5의 第7章, 25의 第5章]. 經濟的 動機가 他律的이고 誘因이 약할 때 制度는 強制力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 끝으로 國際經濟交流에 대한 封鎖의 姿勢는 中央計劃經濟의 效率을 떨어뜨리는 要因이 된다. 中央計劃經濟에도 貿易과 資本交流가 있지만 그 動機는 財貨와 資本의 使用效率을 높인다는 市場經濟模型과는 전연 다른 것이니 國際的 經濟交流를 통해서 國內生産要素의 生産性을 높인다는 窓口가 中央計劃經濟에서는 사실상 막혀 있는 것이다. 中央計劃經濟의 貿易은 必要한 輸入品과 輸入量을 먼저 決定하고 이에 따라서 輸出品과 輸出量이 決定된다. 즉 中央計劃執行에 不足한 最小限의 物資만을 輸入하는 것이고 輸出은 輸入代金を 조달하는 手段에 不過한 것이다[25의 第8, 24章].

따라서 貿易은 政府가 獨占하고 있다. 예컨대 蘇聯의 경우, 貿易部(Ministry of Foreign Trade) 傘下에는 20餘個의 國營貿易商社가 있는데 이들은 品目別로 貿易獨占權을 가지고 있다. 中央計劃機構에 의해서 必要輸入品과 輸出品 및 그 量이 決定되면 이들 國營商社들이 海外公館과 國營銀行(Gosbank)을 媒介로 하여 外國商社와 商談을 벌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市場經濟概念의 換率이 없기 때문에 求償貿易이 主流를 이루고 附隨的으로 金에 의한 決濟가 活用된다. 요컨대 中央計劃的 貿易은 國際分業原理나 比較生産費에 의한 經濟效率增大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技術發展, 資本調達, 國內資源의 活用面에서의 非能率을 배제할 수가 없다. 中央計劃經濟圈의 이러한 封鎖의 姿勢가 특히 1970年代에 와서 크게 完化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非能率에 대한 自認과 反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蘇聯의 경우 貿易은 최근 數年 동안에 急增하여 1975年 現在 輸出總計가 700億美弗에 이르렀으며 8%의 貿易依存度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對西方貿易은 急伸張하여 總貿易에서 占하는 比重이 1971年의 35%에서 1975년에는 44%로 增加하고 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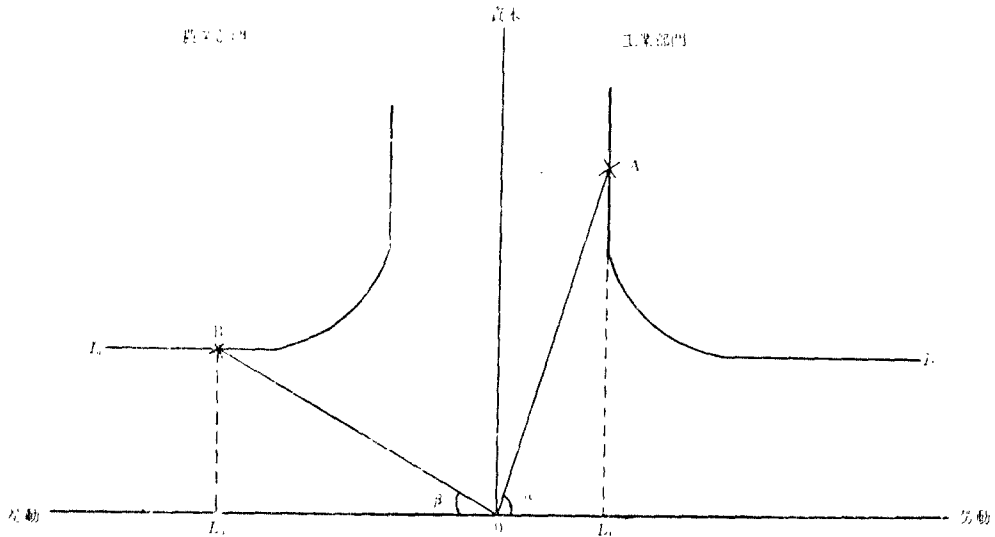
V. 資源配分과 價格機能

1. 産業別 資源配分과 二重構造

程度的 差는 있으나 中央計劃의 開發戰略은 급진적인 工業化이며 工業化는 資本集約度가 높은 重化學生産財産業부터 시작한다는 데 共通點이 있다. 1920年代에 레닌이 소비에트의 完全電力化가 소비에트社會主義의 당면 目標이며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中央經濟計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工業化戰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中央計劃經濟下에서 農業의 位置는 資本調達面에서는 戰略的 重要性을 가지지만 産業成長 政策面에서는 停滯部門이며 다루기 어렵고 골치아픈 兩難對立의 部門이다. 消費財産業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으니 勞動力의 再生産을 위해서 生存에 필요한 最小限의 投資配分이 許容된다. 따라서 成長을 위한 投資의 主力은 生産財重工業部門이다. 資源을 이 部門에 重點配分함으로써 蓄積率을 높일 수 있고 再生産能力을 效果의으로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投資配分이 可能한 것은 販賣市場問題나 生産效率面의 競爭性問題를 克服할 것이 없다는 그 體制 特有의 條件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産業別 投資配分戰略은 産業部門間의 要素集約度와 生産性隔差를 크게 하여 全體의으로 볼 때 資源의 生産效率을 떨어뜨리는 結果가 된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그림 4>에서 보기로 하자. 이 그림에서 I_1 와 I_0 는 工業部門과 農業部門의 總生産等量線을 각각 나타낸다. 個別商品에 대한 等量線이 아니라는 것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計劃經濟下에서는 生産要素의 代替彈性이 낮기 때문에 이들 等量線은 레온티에프型 生産函數와 類似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때 I_1 와 I_0 가 나타내는 生産量이 각각 같을 必要는 없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工業部門에서는 資本集約度가 높은 生産財重工業에 重點投資되기 때문에 예컨대 A點에서의 生産이 選擇된다. 이에 따라 工業部門의 雇傭吸收率이 낮게되어 보다 많은 勞動力을 農業部門에 떠맡기게 되고 農業部門은 이 勞動力을 무조건 完全雇傭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勞動集約的인 B點에서 生産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OL_1 와 OL_0 를 합한 것이 社會全體의 勞動力이다. A點과 B點에서 각각 原點에 그은 直線의 기울기 α 와 β 는 工業部門과 農業部門의 要素集約度를 나타내는데 이들 兩部門間에 커다란 二重構造가 存在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二重構造를 두 等量線에서 A, B 두점의 位置로 比較해 볼 때 工業部門에서는 資本의 限界生産力이 零에 接近하여 資本이 浪費되고 있고 반대로 農業部



〈그림 4〉

門에서는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零에 接近하여 勞動力의 浪費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市場經濟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A, B 두점에서 각각의 等量線에 接線을 그어 그 기울기로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을 내본다면 要素活用上의 明白한 二重構造가 存在함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非能率의 資源配分の 尺度가 된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러나 中央計劃經濟에서는 競爭的 價格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非能率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二重構造의 非能率은 農業의 停滯를 結果하고 나아가서는 工業化 自體의 速度를 鈍化시킴으로서 急速한 工業化를 追求하려는 當初의 意圖와 相反되는 結果를 낳기 쉽다. 예컨대 蘇聯의 경우 社會主義經濟가 成熟段階에 이룬 1959年 現在에도 農業人口는 全體의 40%를 占하고 있으며 이들이 生産하는 것은 純物質生産額(net material output)의 18%에 不過한데 西歐的 GNP概念으로 본다면 生産占有率은 이보다 훨씬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蘇聯의 生産性이 美國보다 落後되었다는 것은 이미 言及한 바이지만 이러한 격차가 農業에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 서어만[25]에 의하면 同一한 量의 農業生産을

위한 投入이 蘇聯은 美國보다 勞動은 6倍, 土地는 2倍이며 機械化率은 대략 美國의 20%에 不過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投資選擇의 基準

예컨대 投資事業 a, b 가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어떻게 決定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市場經濟의 경우 이것은 利率에 의하여 割引된 總生産費用(投下資本 包含)을 最小化하는 것이다. 즉 同一한 價値의 生産을 前提로 하여 投資額을 K , 每年의 生産費(可變費用)를 V , 利率을 i , 時間을 t 라 하면 a, b 두 事業에 대하여 $\sum_{t=0}^n \frac{K_t + V_t}{(1+i)^t}$ 가 적은 쪽을 擇하면 되는 것이다.

中央計劃經濟의 경우에도 基本的인 方向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蘇聯의 경우에는 相對的 效率係數(CRE: coefficient of relative effectiveness)라는 것이 投資選擇의 基準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資本主義經濟에서 말하는 一種의 資本收益率이다[5의 第11章, 25의 第12章]. CRE를 α 로 나타내면 α 는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alpha = \frac{V_b - V_a}{K_a - K_b}$$

여기서 K 와 V 는 앞에서와 같고 添字 a, b 는 同一한 價値의 生産을 위한 두개의 相異한 投資事業을 나타낸다. 예컨대 同一價値의 生産에 投資事業 a 가 200의 投資를 所要하나 生産費는 모두 45가 들고 b 는 100의 投資로 50의 生産費가 所要된다고 하면 α 는 5%로 計算되며 投資事業 a 를 채택할 경우의 資本收益率에 해당한다. 中央計劃機構가 設立하는 標準 CRE를 β 라 할 때 $\alpha > \beta$ 이면 投資事業 a 가 채택되고 $\alpha < \beta$ 이면 b 가 有利하다고 判別된다. 따라서 α 는 市場經濟下의 資本收益率과 같고 β 는 資本費用 즉 利率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두 體制間의 投資選擇에 대한 基準을 비교할 때 基本的인 發想은 같다고 보겠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差異가 있다.

(1) 投資選擇의 合理的인 決定要因으로서는 投資에 따르는 收益과 費用의 合理的인 計算과 將來의 價値를 現在價値로 換價하는 割引率의 導入이 필요하다 하겠는데 中央計劃의 基準에 있어서는 合理的인 投資收益과 投資費用의 計算이 不可能하고 金利概念이 充分히 作用하지 않기 때문에(金利概念을 導入하더라도 이것을 政府가 決定하기 때문에) 合理性을 보장하기 어렵다.

(2) 각각의 投資事業에 대하여 收益과 費用을 計算할 때 몇년을 計算의 對象으로 포함시키느냐 하는 時間基準의 문제이다. 이점에 있어서 볼 때 個人的 判斷에 기초를 두는

市場經濟模型에서는 장래에 대한 위험을 더 크게 의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計劃經濟的 時間基準이 보다 長期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3. 價格의 役割과 計劃의 調整方法

中央計劃下의 需給調整은 價額的 調整이 아니라 物量調整이며 價格에 의한 調整이 아니라 行政力에 의한 調整이다. 中央計劃經濟下에서의 巨視的 需給物量調整은 市場經濟에서의 物動計劃과 概念上 類似하다. 즉 供給은 生産이며 需要는 消費·投資·在庫 등으로 分類된다. 이러한 需給面에 不均衡이 생기면 이것을 調整하는 變數로는 消費財 및 生産財의 割當額調整, 去來稅(turn-over tax), 輸入 및 輸入代金調達을 위한 輸出 등 세가지가 있다. 이러한 物資需給調節에 있어서 優先順位를 정하기 위하여 蘇聯에서는 物資를 緊要度에 따라 몇가지 類型으로 나누고 있다[5, 第7章].

그러나 物資需給上의 不均衡調整은 競爭的 市場價格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中央計劃當局의 人爲的인 判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資源配分面의 最適均衡을 이룩한다는 意味가 없으며 다만 需給不均衡을 어떻게 除去하느냐 하는 單純한 調整作業(a matter of just balancing, not optimalizing)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市場經濟下의 조정과는 基本的인 차이가 있다. 價格은 中央計劃經濟에서도 存在하지만 이것은 競爭的 價格이 아니라 計算價格(accounting price)이며 이것은 最適效率을 導出하는 變數가 아니라 計劃遂行을 위한 統制變數(control variable)이다. 이러한 中央計劃經濟下의 價格이 갖는 機能은 (가) 異質的인 物資를 價額化하여 合計하기 위한 合計手段(aggregation tool) (나) 計劃當局의 個個物資에 대한 優先順位附與手段(discrimination tool) (다) 成果에 대한 評價手段(evaluation tool) (라) 所得 및 資源配分手段(resources allocation tool)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24, 25의 第6章]. 다만 이 가운데 所得 및 資源配分手段으로서 價格이 갖는 機能은 中央計劃機構의 意思를 具現하는 手段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制限的인 일 뿐더러 그 意義가 市場經濟와는 判異하다는 것을 留意해야 한다. 예컨대 中央計劃機構는 特定部門의 勞賃과 價格을 變動시킴으로써 그 부분의 勞動者와 企業 그리고 農民의 所得을 再分配할 수 있으며 原資材價格을 變動시켜서 投入物配合比率(input mix ratio)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中央計劃經濟의 價格은 그 性格에 따라서 네가지 形態로 分類된다.

(1) 工業部門의 生産者販賣價格(都賣價格)인데 이것은 모두 政府가 決定한다. 政府가 價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理論的 基準은 工業部門 全體로서의 平均費用에 4~5%의 利潤을 加算하는 것이다. 個個의 企業은 이 價格으로 生産物을 國家에 販賣하며 이것을 需要하는 企業은 國家로부터 買入한다. 이 경우 個別企業의 平均費用이 아니고 工業全體로서의 平均費

用概念이기 때문에 個別企業들은 損益이 不均等하게 될 것인 바 이것은 國家가 全體利潤에서 再分配해주게 된다. 이때 平均費用에는 勞動·原資材·減價償却이 포함되며 賃賃料·固定資本의 歸屬利子·自然資源 등은 除外된다. 이렇게 볼 때 中央計劃經濟의 價格決定方法은 理論上 平均費用法(average cost pricing)이며 이런 점에서도 限界費用法(marginal cost pricing)을 正統으로 하는 市場經濟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2) 다음 消費者價格과 賃金이 있는데 消費者價格은 政府가 決定하는 都賣價格에 去來稅(turn-over tax)를 加算한 것이며 賃金은 國家가 직접 決定한다. 消費者들은 주어진 賃金에서 職業을 選擇하는 自由는 있으나 賃金決定에 作用할 수는 없으며 消費行爲에 있어서도 주어진 消費價格에서 소비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選擇의 自由는 있으나 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더러 모든 財貨가 國家에 의해서 공급되므로 生産者나 商品에 대해서 選擇할 自由는 없다. 이 때문에 價格이 歪曲된 경우의 消費者厚生에 있어서도 市場經濟와는 크게 差가 있으나 市場經濟下에서는 歪曲된 價格(distorted price)下에서 價格이 限界費用과는 一致할 수 없지만 消費選擇의 自由 때문에 價格이 限界效用과는 一致할 수 있는데 反해서 中央計劃經濟下에서는 이 두가지 均衡이 모두 成立될 수 없는 것이다. 中央計劃經濟下의 消費方法을 보면 教育·醫療 등과 같이 無料로 支給되는 非貨幣的 消費가 있고 돈을 주고 사야하는 貨幣的 消費가 있는데 後者は 配給品消費와 市場消費가 있다. 그나마 最小限의 消費自由가 許容되는 것은 市場消費部門인데 이것이 전체 消費에서 占하는 比重은 매우 작다.

(3) 農產物價格은 二重價格이 形成된다. 蘇聯의 경우 集團農場의 生産物은 그 大部分을 政府에 팔아야 하는데 政府가 買上하는 農產物價格은 政府가 決定한다. 그리고 나서 剩餘가 있으면 이것은 개개의 集團農場이 市場에 賣却할 수 있다. 이렇게 파는 市場價格은 政府買上價格보다 4~5배가 높으나 全體物量面에서 占하는 比重은 매우 작다.

그러면 이와같은 計算價格下에서의 中央經濟計劃은 個個物資의 需給을 맞추는 微視的 調整問題(micro-balancing problem)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基本的으로는 I-O型 調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方法을 완전무결하게 中央計劃當局이 해낼 수 있다면 理論上 社會的 基準에 의한 需給調整은 가능하다. 예컨대 1,000臺의 自動車를 增産할 경우 얼마의 鐵이 필요하고 얼마의 勞動力이 必要한가 하는 것은 逆行列에 의한 聯立方程式의 解로서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供給政策을 세울수 있다. 이러한 解法은 技術係數(technical coefficient)의 固定과 生産要素의 無限供給을 前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理論的으로 效率을 얻는데 制約이 큰 것이지만 이보다도 모든 情報을 中央計劃當局에 集中하고 計劃當局이 이들 情報

를 모두 處理해야 하는데서 오는 번거로움과 非能率, 情報自體의 誤差, 與件變化에 대한 適應能力의 硬直性 등 現實的인 理由 때문에 中央計劃的인 微視調整은 試行錯誤의 反復이 될 수 밖에 없는 短點이 있다.

마지막으로 所得分配의 平等度에 대해서 言及할 必要가 있다. 所得의 平等과 開發에 따른 犧牲의 平等은 中央經濟計劃體制가 指向하는 第一義의 道德的 價値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部分에 있어서는 中央計劃經濟가 市場經濟보다 앞서 있는 것이 事實이며 이것이 市場經濟가 지닌 唯一한 弱點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央計劃經濟의 指導層이 官僚化하는 경향이 있고 生産誘因을 주기 위해서 能率給制度, 또는 賞與制度 등이 점점 더 크게 導入됨으로써 中央計劃經濟의 所得不均等度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反面 市場經濟體制의 不平等은 所得再分配政策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兩體制間의 所得不平等差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蘇聯의 경우 그 나라의 資料에 의하면 1958年 現在 最低 10%의 所得階層과 最高 10% 所得階層의 所得比率은 약 1:5이며 美國의 경우에는 1:31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誇張된 것으로 西方先進國의 不平等度는 蘇聯의 2~3倍 程度라는 것이 西方世界の 計算이다[22의 p.134, 29]. 예컨대 蘇聯의 1963年 賃金隔差를 美弗 表示年間賃金으로 보면 都市最低賃金 400, 農場勞動者 586, 機械工 746, 高校教師 824, 鑛夫 1,092, 醫師 1,260, 변호사 1,376, 國營農場長 3,530, 高級技術者 4,238, 工場長 6,240, 大學教授 7,070, 長官 9,125로서 最高賃金은 最低賃金の 20倍 以上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22, p.135].

VI. 맺 는 말

社會가 추구하는 價値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縱的 價値(vertical value)이며 다른 하나는 橫的 價値(horizontal value)이다. 社會는 계속 成長發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蓄積을 極大化해야 된다. 이것을 決定하는 것이 合理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效率(efficiency)이며 이 效率이 곧 縱的 價値이다. 效率은 競爭과 誘因(incentive)에서 導出되며 社會가 追求하는 動學的 價値이고 質的 價値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橫的 價値는 平等이다. 平等은 本質的으로 量的 概念이다. 效率面에서 본다면 優勝劣敗가 아니라 優者가 犧牲되고 劣者가 得을 보도록 하는 基本構造下에서만 平等은 成立될 수 있다. 自然法則은 優勝劣敗이기 때문에 平等을 實現하자면 自然法則에 맡겨서는 안되며 人爲的인 強制力이 필요하다. 平等實現을 위하여 政府의 強制權이 利用되는 理由가 여기 있다. 그래서 平

등이라는 橫的 價値는 靜學的이고 量的인 價値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資本主義經濟模型은 縱的 價値를 基本價値로 하는 것이며 社會主義模型은 橫的 價値를 基本價値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縱的 價値로서의 效率과 橫的 價値로서의 平等은 本質的으로 矛盾關係에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經濟體制와 開發模型을 兩者擇一해야 하는 문제에 當面해 온 것이다. 兩者擇一해야 하는 立場에서 본다면 平等없는 效率에도 문제가 있지만 效率없는 平等은 더욱 無意味하며 특히 開發途上國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橫的 價値로서의 平等은 그 概念을 어떻게 規定하느냐에 따라 價値基準으로서의 當爲性與否가 論爭의 對象이 될 수 있다. 平等이 個人能力別 平等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社會主義模型에서 보다는 資本主義模型에서 더 잘 保障될 수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體制 특히 中央計劃經濟下의 平等은 個人能力과 관계없는 數量的 平等이라 할 것인데 이것이 果然 社會的 價値基準이 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人爲的이고 先驗的인 價値基準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두 體制가 指向하는 價値基準이 다르기 때문에 經濟行態의 基準에 있어서도 社會主義模型은 平均值概念인데 대해서 資本主義模型은 限界值概念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社會主義的 開發模型의 最大弱點은 非能率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 이러한 非能率을 誘因(incentive)의 缺乏, 適正化(optimization)의 어려움, 與件變化에 대한 適應의 硬直性(rigidity), 生産要素의 低可動性, 生産要素의 낮은 代替彈性, 經濟運用과 情報處理의 번잡성 등 여러가지 要因에서 비롯된다. 이 가운데서도 誘因이 약하다는 것은 가장 큰 體制的 dilemma라 할 것이다. 誘因은 金錢的인 것과 身分的인 것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金錢的인 誘因을 주면 社會主義體制와 衝突하고 身分的인 誘因을 주면 誘引力이 未洽할 뿐 아니라 官僚化를 야기시켜 또 다른 次元의 非能率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社會主義的 開發模型은 開發에 따른 犧牲을 相對的으로 均等化 한다는 점에서 絶對的 貧困下에서도 比較적 社會的 安定을 이룩할 수 있다는 長點도 있다. 資本主義開發模型에서는 훨씬 높은 生活水準을 享樂하면서도 相對所得差 때문에 국민들의 不滿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社會的 安定이 흔들리고 開發計劃의 遂行이 어렵게 되는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經濟體制와 開發模型은 점점 縱的 價値와 橫的 價値를 擇一의 문제로 보지 않고 調和의 문제로 接近하는 歷史的 趨勢에 있고 이 때문에 兩模型은 接近하는 方向으로 進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資本主義的 開發模型은 最小限의 成長이 充足된 다음에는

勞動組合運動의 活用, 累進稅, 完全雇傭, 所得再分配政策, 部分的인 私有權制限, 社會保障制度的 導入 등으로 平等實現에 점점 더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中央計劃的 社會主義模型의 경우에도 體制가 指向하는 平等的 基礎가 다져진 다음에는 利己의 誘因, 分權化, 開放化, 價格機能의 活用 등을 制限的이나마 점차 導入하여 效率을 높이려고 努力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두 模型은 漸進的으로 接近하고 있다고 보겠는데 經濟發展에 있어서 先平等 後效率 보다는 先效率 後平等이 보다 效果的이라고 보기 때문에 資本主義的 模型이 그만큼 優越한 長點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두 模型의 接近을 촉진하는 힘은 무엇인가, 첫째로 두 體制間의 競爭을 들수 있다. 競爭에서 이기려면 自體의 弱點을 補完해야 하는 것이니 이러한 補完努力이 相互間의 모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로는 體制內의인 壓力이 接近을 촉진한다. 資本主義模型에서는 衡平과 國民生活保障에 대한 壓力이 作用하고 社會主義模型에서는 合理化와 自由化, 그리고 技術近代化에 대한 壓力이 作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두가지 要因 때문에 開發模型이 接近하고 있는 것이니 그 內容과 方向을 보면 (가) 資本主義模型에서는 政府의 役割이 커지고 社會主義模型에서는 政府의 役割이 감소하고 있으며 (나) 經濟計劃에 있어서는 資本主義模型이 計劃的 要因을 더 導入하고 社會主義模型은 이를 緩和하고 있으며 (다) 企業의 管理組織面에서는 資本主義模型이 所有와 經營을 分離하는 추세에 있고 社會主義模型에서는 이를 分離함과 동시에 企業經營의 分權化를 추구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裴遜根, 「유고의 社會主義 管理制度」, 『東西經濟』, 海外經濟研究所, 1977年 第2號.
- [2] 田萬述, 尹正鉉, 裴根厚, 「共產圈의 對外貿易과 運用」, 『東西經濟』, 海外經濟研究所, 1977年 第3號.
- [3] Banchet, Pierre, *Economic Planning: The French Experience*, Frederick A. Praeger, New York, 1964.
- [4] Baran, Paul,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Monthly Review Press, Inc., 1957.
- [5] Bergson, Abram, *The Economics of Soviet Planning*, Yale University Press, 1964.
- [6] Dobb, Maurice, *Papers on Capitalism, Development and Planning*,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1967.
- [7] Frank, André G.,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in J.D. Cockcroft *et al.*, eds., *Dependency and Underdevelopment*, Doubleday & Company, Inc., New York, 1972.
- [8] Fung, K.K., "Output vs. Surplus Maximization: The Conflicts between the Socialized and the Private Sector in Chinese Collectivized Agriculture," *The Developing Economies*, March 1974.
- [9] Galbraith, J.K., *The New Industrial State*, 2nd ed., Boston, 1971.

- [10] Gerschenkron, A.,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Ba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 [11] Helleiner, G.K., "Soci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anzani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January 1972.
- [12] Hirschman, A.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1958.
- [13] Hoffman, C., *Work Incentive Practices and Polici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53-1965*,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1967.
- [14] Horvat, Branko, *An Essay on Yugoslav Society*,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 Press, Inc., New York, 1969.
- [15] Howe, C., *Wage Patterns and Wage Policy in Modern China, 1919-1972*, Cambridge, 1973.
- [16] Kaplan, N., "Retardation in Soviet Growt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 1968.
- [17] Leon, Dan, *The Kibbutz*, Pergamon Press, New York, 1969.
- [18] Mandel, Ernest, *Marxist Economic Theory*, Monthly Review Press, 1968.
- [19] Marschak, Thomas, "On the Comparison of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Economie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9.
- [20] Nakagane, Katsuji, "Notes on the Chines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Developing Economies*, March 1974.
- [21] Orbach, Eliezer, *Cooperative Organization in Israel: The Kibbutz and the Moshav*,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adison, 1968.
- [22] Oxenfeldt, A. and V. Holubnychy, *Economic Systems in Ac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New York, 1966.
- [23] Perkins, D.H., *Market Control and Planning in Communist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6.
- [24] Portes, Richard D., "Decentralized Planning Procedures and Centrally Planned Economie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1.
- [25] Sherman, Howard J., *The Soviet Economy*, Little, Brown & Company, Boston, 1969.
- [26] Stuart, R.C. and P.R. Gregory, "A Model of Soviet Rural-Urban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Oct. 1977.
- [27] Ward, Benjamin N., *The Socialist Economy*, Random House, New York, 1967.
- [28] Weitzman, M., *Soviet Postwar Growth: Some Econometric Aspects*,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Oct. 1968.
- [29] Wiles, Peter John De la Fosse,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